

「雲英傳」과 「洞仙記」 속 惡人 탄생의 의미

김 정 숙 *

<目次>

- | | |
|--|--------------------------------------|
| I. 서론 | IV. 「동선기」 - 설화적 악인형의
등장과 통속소설적 변모 |
| II. 동아시아 전근대 사회에서
善惡의 개념 | V. 결론 |
| III. 「운영전」 - 개인적 삶과 공동
체적 삶 간의 갈등, 모호한 善
惡의 경계 | |

<국문 초록>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에 대해 선악의 상투적 대립을 지적하지만, 고전소설에서 선악의 대립이 일반화된 것은 주로 18세기 이후 한글 통속소설에 와서이다. 傳奇小說에서 갈등은 단순히 선악의 대립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금오신화』나 몽유록에서 현실이라는 추상적 惡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17세기 전기소설은 장편화, 통속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속에서 등장인물이 증가하고 공간도 확대되며 인물간의 갈등도 구체화되어 이 시기 전기소설에 악인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발점에 「운영전」과 「동선기」가 자리한다.

「운영전」에서 안평대군으로 상징되는 질서를 天理라고 한다면 이에 대항하는 運營의 욕망은 성리학적 이념에 위배된다. 바로 이 지점,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 안의 대립과 주저, 개인적 삶을 공동체적 삶보다 선한 것으로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책임연구원 / kimjs8613@hanmail.net

인식하려는 욕망이 싹트었으나 결국 공동체의 가치를 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운영전」이다. 그런데 안평대군조차도 정치적으로 소외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소설적 기능은 악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허물을 특(特)이라는 악인에게 돌리고 하늘이 벌을 내려 악인을 벌하는 완결된 구성을 갖추었고, 운영과 김진사가 천상에서 해후한다는 보상을 설정하기도 하였지만 「운영전」 전체의 비감미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전」에서 선과 악의 대립은 있으나 그 경계가 모호하며 악인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통속소설적 악인의 모습과는 다르다.

「동선기」에는 안기와 호손달희라는 두 명의 악인이 등장한다. 이들은 동선의 열녀적 면모를 부각시키는 존재로 끝날 뿐 더 이상의 소설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운영전」과 달리 동선의 사랑은 공동체의 가치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작품 속 두 악인은 동선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존재이다. 다만 한문소설인 「동선기」에서는 한글통속소설과 달리 권선징악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이는 한글본 「동선기」에서 동선과 유씨 부인은 갖은 고생 끝에 서문적을 구한 뒤 충렬부인과 숙부인에 가자(加資)되고 서문적은 항주 자사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결말과 구분된다. 즉 신구서림판 「동선기」는 한문본 「동선기」에서 훨씬 더 통속소설로 진행된 것이다.

「운영전」과 「동선기」 두 작품에서 악인은 고유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을 통해 고전소설이 통속화되는 과정에서 한문소설 속에 선과 악의 대립을 통한 갈등이 시작되었으나 아직은 악인이 완벽한 존재감을 갖지 못하거나 그 조차도 소외된 인물로 묘사되면서 선악의 대립이 모호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작품에서 조선후기 본격적 통속소설로의 이행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주제어】 善惡, 개인, 공동체, 惡人, 「운영전」, 「동선기」

I. 서론

우리가 고전소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상이 권선징악, 혹은 선

악대립이라는 상투적 구조이다. 사실 고전소설의 대표 격이라 할 「홍부전」, 「장화홍련전」, 「유충렬전」, 「콩쥐팍쥐」 등은 대개가 선악의 확실한 대립구도를 지니고 있다. 물론 선과 악의 같등이란 그 실체가 어떻게든 간에 같등을 소재로 하는 서사에서는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고전소설의 상투성을 비난할 때의 ‘선악의 대립’은 도덕적으로 한 없이 선한 주동인물과 도덕적으로 끝간 데 없이 악한 반동인물 간의 대립, 어떤 재고의 여지없는 흑백의 대립이기 때문이다.

소설 속 인물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규정짓는 주체의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며, 소설을 대하는 작가와 독자의 태도의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명백한 선악의 대립, 선인의 승리와 악인의 징치는 일반 대중의 통속적 욕망을 반영한 것으로 그 안에는 어떤 반성이나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상투적 구조를 지닌 고전소설은 통속소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독자 대중의 욕망을 의식해 소설 작품이 권선징악, 선악의 대립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은 주로 18세기 이후, 즉 가정·가문소설이나 영웅소설에 와서의 일이다. 고전소설에는 이러한 통속적 작품 외에 여러 시대의 다양한 소설이 존재하며 그 작품 속의 같등을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이와 악한 이의 대립으로 설명할 수 없다. 특히 한문소설 중 전기소설은 문인 사대부층의 소외감을 소설화한 장르이기 때문에 작품 속 같등의 의미는 통속소설의 그것처럼 간단하지 않다. 『금오신화』 전편에 흐르는 충족되지 않는 고독감, 몽유록에서 보이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통해 볼 때 이들 작품 속에서 惡(혹은 不正)은 현실 그 자체이다. 그러한 부정적 세계 속에서 소설의 주체는 소외되거나 비껴있다. 소설 속 인물은 자신의 욕망-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을 소설 속 사건인 여인과의 사랑이나 이계예의 초대와 문장력의 과시 등으로 해소할 뿐이지, 부정적 현실에 직접 뛰어들어 그것을 징치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方外에서 삶을 관조하고 슬퍼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작품 속에 구체적 반동인물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한문소설 속에 현실이라는 추상적 惡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기 시작

한 것은 17세기 이후의 일이다. 17세기 전기소설은 장편화, 통속화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속에서 등장인물이 증가하고 공간도 확대되며 인물 간의 갈등도 구체화되어 이 시기 전기소설에 악인이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발점에 「운영진」과 「동선기」가 자리한다. 두 작품에는 구체적 악인이 등장하여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고 주인공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다. 그리고 악인은 작품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징치’된다. 이는 분명 이전의 전기소설과는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작품이 예외의 권선징악적 고전소설, 즉 통속소설에 합류했다고 단언하기는 미심쩍다. 왜냐하면 작품에서 악인의 징치 후에 모두가 ‘행복’한 결말로 끝나지도 않고 악인에 반대쪽에 있는 주인공을 반드시 ‘선인’이라고만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 두 작품은 이전의 전기소설과는 달리 악인이 등장하여 갈등을 증폭시키지만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전근대 사회에서 **善**과 **惡**이란 무엇이며 고소설에서 17세기 이후에 **善惡**의 대립적 개념이 등장한 배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의 주된 논지인 「운영진」과 「동선기」속 **惡人**의 형상과 그것이 고소설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I. 동아시아 전근대 사회에서 **善惡**의 개념

선악의 개념을 파고 들어가면 서양의 이원론적 선악관과 **惡**을 절대악이 아니라 선의 결핍태로 보는 동양적 선악관이 있다. 동양의 인간관에서는 인간의 심성에 천리가 내재하여 있기 때문에 비록 현재 바르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의 선한 본성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다. 『中庸』은 제일 첫 구절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에서부터 하늘로부터 명령된 것을 **性**이라고 하여 인의예지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하늘이라는 최고의 가치에 두었고, “誠者, 天之道. 誠之者, 人之道”라고 하여 인간의

私慾을 없애야만 진실무망한 天理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하늘의 道, 天理는 인욕과 대비되는 純善의 상태로 이를 품부 받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누구나 선한 본심을 지니고 태어나지만 外物과 접하면서 人慾의 사사로움에 의해 善心이 쉽게 가려지곤 한다. 그러므로 유학에서는 조금의 나태도 허용하지 않는 ‘慎獨’, 즉 혼자만이 아는 상황에서조차 삼가는 극한의 절제를 중시한다. 이렇듯 자신의 不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근본적인 믿음은 변함이 없다. 天理에 대비되는 人慾은 도덕적 판단에서 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인욕에 가리운 마음은 회생 불가능한 악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 인욕의 사사로움을 없애면 언제든지 善으로 복귀가능하다. 즉 可善可惡의 유동적인 개념이 성리학적 선악관이라고 할 수 있다.

선악의 관계는 성리학에서 이처럼 고정되지 않은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일까? 선악의 내용은 무엇을 선악으로 보는가, 즉 판단의 문제와 관련된다. 도덕적 실천의 차원에서는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악이며, 이때 도덕적 기준은 절대적이고 보편타당한 준칙이다. 그런데 이런 도덕적 기준은 ‘形氣之私’, 즉 인간 개인의 사사로움 욕심이 아닌 ‘性命之正’에서 근원한 것이다. 여기서 形氣와 性命은 육체(본능과 사적인 욕구)와 본성(도덕의식)¹⁾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 그 결과 성리학에서는 ‘인욕을 없애고 천리를 보존(滅人慾, 存天理)’하는 철저한 자기검열과 도덕실천을 요구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도덕적 행동을 강조하는 성리학에서 인간의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는 모든 행동은 바르지 못한[不善]한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칫 지나친 절제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淳于髡가 남녀 사이에 개인적 授受가 예에 맞는지에 대해 맹자에게 한 질문에서 형수가 빠졌을 때 손을 잡고 구해도 되는가를 예로 든 경우에서도²⁾ 그러한 고민을 엿볼 수 있

1) 이동희, 「성리학의 선악관」, 『동양철학연구』 50, 동양철학연구회, 2007, p.302.

2) 『孟子』, 「離婁章句上」, “淳于髡曰, ‘男女授受不親, 禮與?’ 孟子曰, ‘禮也.’ 曰, ‘嫂溺則援之以手乎?’ 曰, ‘嫂溺不援, 是豺狼也. 男女授受不親, 禮也; 嫂溺援之

다. 성리학에서 남녀의 문제는 도덕적 실천과 관련하여 가장 민감하고 단언하기 힘든 부분이다. 위에서 형수의 손을 잡고 구하는 것을 權道로 풀고 있는 것처럼, 남녀의 문제는 그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과 부합할 경우에는 용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과 관련된 경우는 가차 없이 비판받는 경우가 많다. 즉 유학에서 도덕적 준칙의 기본은 ‘공공성’내지는 ‘사회성’이니, 전근대 사회에서 선악의 대립은 ‘전체’와 ‘개인’의 대립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이는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나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나 모두 禮를 강조하는 데서도 알 수 있으니, 禮란 바로 공공의 이익, 질서를 위해 개인적 이익의 절제 내지 희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동체의 질서를 위한 예에 맞는 행동은 善이요, 개인적 욕망이나 이익을 앞세우는 행동은 惡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유학의 이러한 관념은 다분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때론 정치나 다수의 논리에 의해 개인의 욕망이 공공의 善이라는 측면에서 쉽게 무시되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점차 ‘개인’이 대두됨에 따라 이처럼 공동체를 선으로 여기는 전근대적 관념은 곳곳에서 마찰을 일으키게 되었다.

III. 「운영전」 - 개인적 삶과 공동체적 삶 간의 갈등, 모호한 善惡의 경계

선악의 대립으로 볼 때 「운영전」은 매우 독특한 작품이다. 분명히 악인은 등장하지만 악인의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에 독자들은 악인이 처벌 받는 것을 보고도 전혀 마음에 상쾌함을 느끼지 못한다.

「운영전」의 서사구조에는 크게 두 가지의 대립이 있다. 우선 남녀 주인공(운영과 김진사)과 이들의 사랑을 금하는 안평대군 간의 대립으로 「운영전」에서 가장 큰 서사의 축을 이룬다. 안평대군은 “궁녀로서 한 번 궁문을 나간 자는 그 죄가 죽음에 이를 것이며 바깥사람이 궁녀의 이름

以手者, 權也.”

을 알게 된다면 그 죄 또한 죽음에 이를 것이다.[侍女一出宮門, 則其罪當死, 外人知宮女之名, 則其罪亦死]”라 하며 10인의 궁녀를 비해당(匪懈堂) 깊은 곳에 유폐시킨다. 하지만 견고한 듯 보이지만 언제라도 깨질 가능성을 내포한 이 공간은 김 진사가 떨어뜨린 떡물 한 방울로 균열이 생긴다. 운영과 김 진사 두 사람은 대군의 눈을 피해 편지를 주고받고 답을 넘으며 사랑을 나눈다. 작품의 주인공인 이 두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안평대군은 분명 ‘악의 축’이며 부정의 대상이니, 「운영전」은 운영과 김진사라는 선과 안평대군이라는 악의 대립을 그린 작품이다.

그러나 작품에서 안평대군은 그다지 부정적 인물로 묘사되지 않는다. 그는 청정 공간에서 시작(詩作) 활동을 추구한 것이며 운영을 사랑했으나 차마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았던,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물이기도 하다. 안평대군은 두 번이나 운영의 시에서 ‘사인지의(思人之意)’가 있음을 간파하였고 김생과의 관계를 짐작하였으나 운영에 대한 마음으로 눈을 감아주기도 하였다.³⁾ 또한 김생과 운영의 일이 사실로 밝혀져 문초를 할 때도 안평대군은 여러 궁녀들의 초사(招辭)를 읽고 노기가 풀려 운영을 가두기만 했을 뿐이니 시간이 지나면 또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었다.⁴⁾

이를 통해 볼 때 안평대군은 전혀 악인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 그가 ‘대군’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운영과 김 진사의 사랑을 긍정한다고 해도 중세 봉건 질서의 상층에 있는 안평대군을 철저한 악인으로 묘사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운영전」은 개인의 사랑을 통해 안평대군으로 상징되는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의 대립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었지만 중세 봉건 질서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계다가 안평대군(1418-1453)은 당시 정치 현실에서 패배하여 형 수양

3) 「雲英傳」, “而第雲英之詩, 顯有思人之意. 前日賦烟之詩, 微見其意, 今又如此, 汝之欲從者, 何人耶? 金生之樸文, 語涉疑異, 汝無乃金生有思乎?”……大君雖盛怒, 而中心則實不欲其死, 故使紫鸞救之而不得死.”

4) 「雲英傳」, “大君之怒稍解, 囚妾于別堂, 而其餘皆放之; 其夜妾以羅巾, 自縊而死.”

대군에 의해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인물이었다.⁵⁾ 작품 속 공간인 수성궁, 특히 세상과 더욱 격리된 비해당은 청정의 공간이며 궁녀뿐만 아니라 안평대군도 유폐시키는 고립의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전」의 등장인물은, 안평대군을 포함하여 모두 소외된 인물들이다. 작가는 이들 모두에 대해 동정어린 시선을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안평대군이 주인공과 대립적 위치에 있지만 작가는 시종 그의 문장력에 대해 칭찬을 하고 운영을 배려하는 마음을 강조한 것이다.⁶⁾

그런데 안평대군이 세우고자 했던 청정의 공간은 철저한 유자로서의 도덕적 공간이며 이상적 공간이었다. 수성궁에서 밤낮으로 독서에 열중하며 한 순간도 방만히 보내지 않았던 안평대군의 삶은 성리학적 가치관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하며 권장할 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안평대군이 유폐된 공간을 만들고 궁녀를 인위적으로 격리시키며 외부인과의 만남을 죽음으로 금한 것은 일반적 통념으로도 절제를 넘어선 禁歷이었다. 소외된 인간이었던 안평대군은 비해당이라는 청정의 공간을 통해 모든 것이 충족된 이상향을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그 공간은 안평대군의 욕망과 궁녀들의 욕망이 상충하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불안한 유토피아였다. 안평대군이 운영의 일탈을 짐작했으면서도 짐짓 눈감아준 것은 운영에 대한 사랑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이 만든 완벽한 공간에 균열이 생길 것을 우려한 때문이기도 하다.⁷⁾

5) 「운영전」의 안평대군은 실제 그의 정치적 야망과 패배, 그의 인물됨이나 史官의 정치적 평가 등과는 거리가 있는 허구화된 인물이다. 안평대군의 역사적 삶에 대한 연구는 황혜진, 「고전소설 소재 인물의 역사적 삶에 대한 연구 -<운영전>의 안평대군에 대한 실록의 기록을 대상으로-」, 『고소설 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를 참고할 것.

6) 작품 곳곳에는 안평대군의 문장력을 칭찬하는 구절이 자주 나온다.

“莊憲大王子，八大君中，安平大君最爲芙蓉。上甚愛之，賞賜無數。故田民財貨，獨步諸宮。年十三，出居私宮，宮名卽壽聖宮也。以儒業自任，夜則讀書，晝則或賦詩，或書隸，未嘗一刻之放過。一時文人才士，咸萃其門，較其長短，或至鷄叫參橫，講論不怠。而大君尤工於筆法，鳴於一國。”……“雖然，皆不及於大君之才也。”

7) 안평대군의 불안은 바깥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워하여 한 번도 외부 문사들

안평대군이 처한 이중의 고민-관습대로 강요하던 공동체의 이상이 개인적 가치에 의해 부정되는 상황과 자신이 세운 이상왕국이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작품 속에서 남녀주인공의 대척점에 있긴 하지만 악인일 수는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운영전」에서의 대립은 안평대군이라는 惡과 운영이라는 善의 대립이 아니라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안평대군의 측과 개인적 가치를 중시하는 운영 측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운영전」의 유일한 악인은 김 진사의 하인 特이다. 그는 운영과 운영의 재산을 훔쳐내고 김 진사를 죽이려 했으며 재물을 훔친 뒤에는 죄가 드러날까 도리어 김 진사와 운영의 일을 소문내 결국 운영을 자살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운영이 죽은 뒤에 김 진사의 부탁으로 불공을 드리는 장면에서는 特의 악인다운 면모가 여실하다.

즉시 절로 올라가서 삼일을 궁둥이를 두드리며 누워 놀다가 중을 불러 일렀다.

“사십 석의 쌀을 어디에 쓰겠소? 다 부처님에게 바쳐야겠소? 오늘 술과 고기를 많이 장만해 놓고 널리 俗客을 불러 먹이는 것이 좋겠소.”

그때 마침 마을 여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강제로 겁탈하고는 승당에서 머문 지 수십 일이 지나도록 재를 올릴 생각이 없었다. 중들이 모두 분하게 여기다가 초렛날에 미처서 特에게 말했다.

“불공하는 일은 시주가 중하운데, 시주가 이와 같이 불결하니 일이 극히 편치 않습니다. 맑은 시내에 가서 목욕하여 몸을 깨끗이 하고 예를 행함이 좋겠습니다.”

특은 마지못하여 나가 잠시 물로 씻고 들어와서는 부처님 앞에 꿇어 앉아 빌었다.

“진사는 오늘 빨리 죽고 운영은 내일 다시 살아나 特의 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와 같이 삼일을 밤낮으로 발원하는 말이 오직 이것뿐이었다.⁸⁾

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궁문을 나가는 자들은 죽음으로 응징한다는 그의 선언적 발언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 8) 「雲英傳」, “卽上寺, 三日叩臀而臥, 招僧謂之曰, ‘四十石之米何用? 盡入於供佛乎? 今可多備酒肉, 廣招俗客而饋之宜矣.’ 適有村女過之, 特強劫之, 留宿於僧堂, 已過數十日, 無意設齋. 寺僧皆憤之, 及其建醮日, 諸僧曰, ‘供佛之事, 施主爲重, 而施主不潔如此, 事極未安, 可沐浴於清川, 潔身而行禮可矣.’ 特不得已

하지만 「운영전」의 비극적 결말의 원인을 특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리다. 사실 특은 원래부터 악인은 아니었으니, 김 진사가 운영을 만나러 갈 계책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을 때 기발한 사다리를 만들어 둘의 만남을 이루어 주었고 일이 발각될 기미가 보여 우려하고 있을 때 운영과 함께 달아나라고 적극적으로 권했던 인물이다. 비록 운영의 재물을 몽땅 차지하기 위해 김 진사와 운영의 사이를 소문내어 안평대군의 귀에 들어가게 하였지만 이미 안평대군은 둘의 사이를 짐작하고 있었던 터였기 때문에 운영이 죽은 것이 특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특의 모습은 재물을 위해 자해를 하는가 하면 김 진사에 대한 음해성 소문을 퍼뜨리고 외간 여자를 겁탈하기도 하는 악인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결국 우물에 빠져 죽는 악인다운(!) 결말을 맞는다.⁹⁾

「운영전」에서 특이 악인이 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앞에서 안평대군이 주인공과 대립적 위치에 있음에도 전혀 부정적 인물로 묘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된다. 주인공의 사랑에 결정적 장애는 안평대군이지만 그는 ‘대군’인데다 또 하나의 소외된 존재이기에 작가는 안평대군 대신 누구나 마음 놓고 비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악인을 만들었으니 그가 바로 특이다. 이에 대해 이남호는 “특이란 악인의 소설적 기능은 안평대군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절대 권력과 절대 이념이 지니고 있던 악이 우의적으로 표현된 것”¹⁰⁾이라고 하였는데 경청할 만한 주장이다.

작품 속에서 특의 악행으로 인한 죽음은 사건의 결가지일 뿐이다. 만일 악의 징치를 목적으로 했다면 특의 결말이 것처럼 허술하게 처리되

出, 暫以水沃濯, 而入跪於佛前祝曰, ‘進士今日速死, 雲英明日復生, 爲特之配.’ 三晝夜發願之設, 唯此而已.”

9) 「雲英傳」, “後七日, 特壓於陷井而死.”

10) 이남호, 「한국문학과 악-조선시대 소설에 나타난 악의 양상」,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p.128.

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은 불공을 드리는 대신 방탕하게 놀더니 결국 사실을 알게 된 김 진사가 부처에게 특을 죽여 달라는 축원을 올리자 7일 만에 우물에 빠져 죽는다. 일종의 신벌(神罰)이며 천벌(天罰)이긴 하지만 앞에서 그렇게 악행을 벌이던 특의 결말치고는 너무 소략하다. 게다가 김 진사는 악이 제거됐음에도 곡기를 끊고 자살한다.¹¹⁾ 이것은 특의 죽음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운영의 자살 이후 특의 죽음을 통해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마무리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또 다른 측면은 한문소설 「운영전」에 가해진 국문 통속소설의 영향이다. 국문소설은 허균의 「홍길동전」이 16세기에 창작된 이후 17세기 중후반에 「임경업전」, 「숙향전」, 「박씨전」, 「소현성록」 등의 국문 중장편소설이 다수 등장한다. 17세기 「운영전」에 보이는 통속 소설적 면모-특이라는 악인형 인물의 등장과 징벌, 천상계에서 적강한 인물로 설정된 것, 이승에서의 이별이 천상에서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다는 결말 등-는 당시 유행하던 국문소설의 강한 영향이다. 「운영전」에서 특이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는 소설의 미학적 측면에서 상당히 구분된다. 특의 등장 이전에는 다수의 한시에서 느껴지듯 상당히 절제되고 고아한 느낌을 준다. 김 진사와 운영의 사랑의 감정도 더할 나위 없이 절제되고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그런데 특이 등장한 이후에는 사건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역동적으로 전개된다. 운영이 꾸 예지몽, 궁궐 밖 맹인의 점괘, 절에서의 사건 등 전반부에 비해 훨씬 다채로워졌다. 여기에다 악인형 인물의 등장, 그로 인한 주인공과의 갈등은 한문소설이 국문소설과 접촉하면서 통속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리학에서 본성이 외물과 접하면서 발생한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즉 인욕(人欲)은 부정의 대상이다. 운영에게 김 진사의 떡물 한 방울이 튀었을 때 생긴 연모의 감정이 바로 인욕이며 안평대군이 운영의 시에

11) 「雲英傳」, “自是我無意於世事, 沐浴潔身, 着新衣, 臥于安靜之房, 不食四日, 長吁一聲, 因遂不起.”

서 본 것도 바로 인욕의 발아이다. 「운영전」에서 안평대군으로 상징되는 질서를 천리라고 한다면 이에 대항하는 운영의 욕망은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없앤다.[存天理滅人欲]’는 성리학적 이념에 위배된다. 바로 이 지점, 개인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 안의 대립과 주저, 개인적 삶을 공동체적 삶보다 선한 것으로 인식하려는 욕망이 발아되었으나 결국 공동체의 가치를 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운영전」이다. 또한 안평대군조차도 정치적으로 소외된 인물로, 작품 곳곳에는 그의 뛰어난 문필력을 칭찬하였으며 수성공의 황폐해진 모습과 함께 그의 불운을 안타까워하였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안평대군의 소설적 기능은 악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허물을 특이라는 악인에게 돌리고 하늘이 벌을 내려 악인을 징치하는 완결된 구성을 갖추었고, 운영과 김 진사가 천상에서 해후한다는 보상을 설정하기도 하였지만 「운영전」 전체의 悲哀나 悲壯의 미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전」에서 선과 악의 대립은 있으나 그 경계가 모호하며 악인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통속 소설적 악인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IV. 「동선기」 - 설화적 악인형의 등장과 통속 소설적 변모

「동선기」는 풍류 재자 서문적과 기생 동선의 사랑과 악인형 인물의 作奸에 의한 이별과 고난, 동선의 적극적 노력에 의한 재회를 그린 한문 소설이다. 「동선기」는 연구 초기에는 적강소설, 도선소설, 도교소설 등으로 분류되었지만 최근에는 17세기 애정 전기소설의 계승과 변모라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¹²⁾ 이는 「동선기」가 전통적 애정전기소설의 특

12) 동선기와 관련한 주요 논문은 다음과 같다. 문범두, 「<동선기>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김재수, 「<동선기> 연구 I」, 『한국언어문학』 33, 한국언어문학회, 1994.; 「<동선기> 연구 II」, 『광주교대논문집』, 광

징들을 관습적으로 계승하면서도 부정적 인물을 포함한 다양한 인물이 등장한다거나 여자 주인공의 재생이라는 환상적 요소가 삽입되는 등 여러 면에서 통속적 변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동선기」에는 안기와 호손달희라는 두 명의 악인이 등장한다. 여진의 침략으로 서문적과 동선이 헤어졌는데 여진에게 보낼 글을 쓸 사람을 구하자 동선은 남장을 하고 선무사에게 서문적을 추천한다. 이때 선무사의 회화에 안기라는 장수가 동선의 미모에 반해 화친을 거부하는 거짓 편지를 서문적이 쓴 것으로 위조해 그를 연경의 감옥에 갇히게 한다. 그리고 나서 동선에게 서문적이 살아올 가망이 없으므로 자신을 섬기라고 회유하지만 전혀 뜻을 돌리지 않자 다시 서문적이 죽었다는 거짓 편지를 보내고 동선의 모친을 회유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동선은 안기의 회유와 겁박을 계속해서 거절하며 서문적에게 닥친 위기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자살한다. 「동선기」에서 안기는 서문적과 동선을 위기에 빠뜨리고 갈등을 형성하여 사건을 전개시키는 중요한 존재이다.

작품에 나오는 또 한 명의 악인은 호손달희로 작품 내 비중은 안기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 죽었던 동선이 神人의 계시를 듣고 되살아나 서문적의 본부인과 연경으로 가는데 호손달희를 만난다. 그는 평소에 장만부(서문적의 친구)로부터 동선의 미모에 대해 듣다가 만나보고는 동선의 거절에도 “대장부가 이 여인을 얻지 못하면 천하에 쓸모없는 인간이 될 것이다.[大丈夫不得此, 天下之棄物也]”라 하며 한밤중에 동선에게 들이닥친다.

주교대, 1994.; 소재영, 「<동선기> 연구」, 『고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신상필, 「<洞仙記> 연구」, 성균관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권도경, 「<동선기> 연구」, 『이화어문논집』 18, 이화여대, 2000.; 정환국, 「<동선기>의 지향과 소설사적 의미」, 『대동한문학』 14, 대동한문학회, 2001.; 양승민, 「<동선기>의 작품세계와 소설사적 위상」, 『고소설연구』 11, 한국고소설학회, 2001.; 김정숙,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 연구」,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윤재민, 「<동선기>의 장르적 성격」, 『민족문화연구』 4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6.

이날 밤 일행이 깊이 잠들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소리가 들리고 불빛은 낮과 같았다.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깜짝 놀라 보니 한 장수가 뛰쳐 들어와 동선의 손을 잡고는 星火처럼 끌고 나갔다. 동선이 끌려 나와 보니 바로 호손달희였다. 동선이 객관에 이르러 활과 칼, 도끼 등이 곁에 있는 것을 보고는 도끼를 들고 자신의 손을 잘라 달희의 이마에 던지며 말했다. “이것은 네 손에 들어간 물건이니 내가 어찌 쓰겠느냐?”¹³⁾

이 부분 외에 호손달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지만 이 사건으로 그는 독자들에게 악인으로서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동선은 서문적에 대한 신의, 절의를 추구하는 인물로 그녀의 절의에 대한 신념은 안기에게 보낸 글에 장황하게 나와 있다.

하물며 열녀와 충신은 이름은 다르지만 도는 같이합니다. 지금 장군께서는 송나라의 충신이고 저는 서문적의 열녀입니다. (中略) 진실로 편안할 때는 향하고 위태로울 때는 배반하는 것은 할 수 없으니 어찌 북쪽의 강성한 세력에 몰래 빌붙어 개와 양 같은 곳에서 목숨을 도모할 것이며 어찌 차마 초심을 버리고 몸을 허락했던 뜻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마음에 차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리로도 심히 불가합니다. (中略) 이미 강상의 법을 들었는데 다만 부부의 의리에 대해서는 어둡겠습니까? 군자의 도는 여기에서 단서를 여는 것이며 부부의 정절은 여기에서 쉽게 드러납니다.¹⁴⁾

13) 「洞仙記」, “是夕, 一行穩頓牢睡, 忽聞馳突之聲甚速, 火光如晝. 衆睡驚覺, 見一武夫, 驟入, 拿洞仙之手, 星火曳出. 仙隨手以出, 乃槌嬉也. 到其館, 見弓劍戈斧之屬, 交置左右. 仙急引斧, 斬其手掌, 以抵槌嬉之額上曰, ‘是汝之手中物也. 吾將安用哉!’”

14) 「洞仙記」, “何況烈女忠臣, 異名同道, 今將軍, 乃宋朝忠臣, 妾乃西門烈女也. 將軍食宋之食, 衣宋之衣, 受宋之爵, 宋之於將軍也, 固已厚矣, 將軍之於宋也, 安得不一心而終始乎? 固不可宴安. 而向之, 危亡而背之, 寧忍暗付於北朝強盛之勢, 偷生於犬羊之天下乎? 寧能忍棄初心, 曾不思許身之義乎? 非徒心不忍, 義不可之甚也……既聞綱常之典, 獨暗夫婦之義乎? 君子之道, 造端乎此, 夫婦之貞, 利見於斯矣……忠臣之義, 於恒於斯盡矣. 烈女之節, 於恒於斯畢矣. 夫以將軍之忠, 其許身殉王之誠, 可以通金石, 蹈水火, 無所往而不大義也. 奈何一見兒女, 暗起私情, 棄循公之初心, 損服人之壯節耶?……”

동선의 입장에서 볼 때 안기와 호손달회는 서문적에 대한 질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인이다. 안기는 계속해서 동선과 서문적을 갈라놓고 동선을 차지하려 했으며 호손달회는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다. 그들의 행위가 가혹할수록 동선의 질의는 빛난다. 관기의 몸으로 장군인 안기의 회유를 더 이상 피할 수 없자 자살을 하고 서문적을 구하러 연경으로 가기도 한다. 즉 「동선기」 속 악인은 동선의 열녀적 면모를 부각시키는 존재이다.

악인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동선은 악인의 행동에 강하게 저항하고 이겨내지만 그 후에 그들을 어떻게 조치하지 않는다. 악인은 동선의 열녀성을 부각시키고 소설 속에서 사라진다. 안기는 동선을 회유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더니 결국 금나라에 끌려갔고,¹⁵⁾ 호손달회는 이마에 동선의 손이 들러붙는 벌을 받긴 하지만 강물에 얼굴을 백일동안 씻으면 낫는다고 한다.¹⁶⁾ 그 후 호손달회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춘향전」에서 작품의 끝까지 변사또가 등장하고 선인에 의한 악인의 징치로 마무리 되는 것과 구분된다. 「동선기」에서 악인은 동선의 선한 속성을 드러내는 보조적 역할을 할 뿐이다.

「운영전」의 사랑이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반역이라면 「동선기」의 사랑은 공동체의 가치와 어긋나지 않는다. 동선의 열녀적 면모는 열녀 담론이 지배하던 조선후기 이데올로기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기와 호손달회라는 악인은 동선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회적 악인이다. 이에 대한 징치와 선인의 보응이 강조되었다면 「동선기」는 「춘향전」류의 통속소설이 되었을 것이지만 한문본 「동선

15) 「洞仙記」, “時金國聞岳武穆練習之機, 大怒先檄杭, 致其帥安琦, 被縲而往, 營一空矣.”

16) 「洞仙記」, “其掌着額深入, 欲去不得, 疾痛甚劇, 急訪知者問之. 有一卒曰, ‘是冤魔所結, 未易治之. 必於長川流水, 沒入其面, 多不過百日, 可去.’ 嬉不得已從之.”

기」는 악인과 대립하는 선인을 모습을 강조하는 데서 그쳤다.¹⁷⁾

그런데 「동선기」의 국문본인 신구서림판(24회본)에는 동선과 유씨 부인이 갖은 고생 끝에 연경에 가서 서문적을 구해 내고 돌아온 뒤 안기의 죄상을 임금에게 고하자 총렬 부인과 숙부인에 가자(加資)된다. 또 서문적은 항주 자사가 되어 경경 등 여러 기생을 부인으로 맞이하여 부귀 영화를 누린다. 선인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과 해피엔딩이 한문본에 비해 상당히 부연되었다. 이는 악인에 대한 선인의 승리와 그로 인한 사회적 보상을 강조한 것으로 완전한 통속 소설적 면모이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가문소설이나 영웅소설에서 현덕한 부인과 열녀를 그리고 문무겸전한 남성적 영웅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은 소설의 통속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들의 덕성은 대개 악인의 강도와 비례하여 발휘되며 그들은 모두 악을 딛고 영웅이 된다. 「동선기」에서 동선은 서문적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남녀의 구분이나 귀천의 차이 등 예법을 중시하는 婦德을 지녔고 서문적의 위난에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키고자 했던 열녀였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에서는 현몽이나 부활 등의 異蹟이 그러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설정되었고 작품의 말미에 도죽산에 의 은거라는 행복한 결말이 뒤따른 것이다.

「동선기」에서 똘은 안기와 호손달희 같은 악인이라는 구체적 대상도 있지만 동선에게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많은 부정적 현실-서문적과의 이별과 만남의 반복, 죽음, 겁탈의 위기 등-이야말로 주인공이 헤쳐 나가야 할 極惡한 대상이다. 「동선기」는 동선이 이러한 거듭되는 시련을 이겨내는 모습을 그림으로써 그의 善人으로서의 형상, 영웅적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동선기」에서 악인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동선의 잘려진 팔이

17) 또한 이들 악인형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 동선은 영웅적 면모를 띠기도 하니, 서문적을 구해낸 동선이 구걸을 하던 수백 인을 이끌고 관아로 쳐들어 가 물건을 탈취하는 장면에서 그러한 경향의 일단이 엿보인다. 동선의 영웅적 면모는 1913년 활자본에 오면 더욱 강조된다.

호손달희의 이마에 달라붙었는데 흐르는 물에 얼굴을 씻으면 백일 만에 떨어진다거나¹⁸⁾ 잘려진 팔이 서문적의 시체를 찾는 내용 등은 전대의 전기소설과 비교할 때 전혀 다른 미감을 보인다.

갑자기 하나의 손이 물 위에서부터 떠내려 오는 것을 보았는데, 곧바로 시체 더미 곁에 이르더니 살아있는 사람마냥 시체의 손을 꼭 붙잡았다. 동선이 달려가 살펴보니 황금 반지 한 쌍이 여전히 무명지에 끼어 있었다. 동선이 크게 놀라워하며 자신의 잘려진 팔뚝을 아래로 향하게 하니 그 손과 저질로 합쳐져서 예전의 모습 그대로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시체의 손을 풀지 않아 끌어당길 수가 없었다. 小君, 두 여종과 힘을 합쳐 시체를 끌어 당겨 보니 바로 서문적이었다. 그제야 손이 풀려 물로 시체를 닦으니 특별히 상처를 입은 곳이 없었다.¹⁹⁾

「동선기」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미감이 사뭇 다른 작품으로, 전반부에 서문적이 과거에 낙제한 뒤 두 명의 친구와 유람을 떠나 양자강가의 雲英, 서주의 瓊瓊을 만나는 부분은 풍류재자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 주지만²⁰⁾ 후반부에서는 두 명의 악인과의 갈등 속에서 사건이 역동적으로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위의 예문과 같이 다소 설화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외에 小君(서문적의 正妻)이 다가가자 죽었던 동선의 관이 열리면서 동선이 살아나기도 하는데 이 역시 전대의 소설과는 차이가 나는 것들이다. 「동선기」에 보이는 선악의 강한 대립, 설화적 장치로 인한 신비한 분위기의 고조 등은 대개 당시 통속적 국문소설에서 주로 보이는 것이니, 이는 「운영전」과 마찬가지로 한문소설이 국문소설과 교섭하면서 수용한 통속적 내용이다. 애초에 재자가인소설로서 풍류재자인 서문적의 여성편력으로 시작한 「동선기」에 통속적 국문소설의 영향으로

18) 「洞仙記」, “是冤魔所結, 未易治之. 必於長川流水, 沒入其面, 多不過百日, 可去.”

19) 「洞仙記」, “忽見手掌, 從水上浮下, 便到積尸傍, 着執尸手, 壹如生人, 相執手矣. 仙趨而觀之, 有黃金指環一雙, 尙着其無名旨矣. 仙大異之, 試以所斷臂頭, 垂而向之, 則其掌與之自合, 完如舊矣. 猶不釋尸手, 不能引出, 小君與二婢同力, 並其尸攤出, 乃上客也. 手始相解, 以水洗尸, 別無傷害處”

20) 김정숙,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 연구』, 보고사, 2006.

전·후반의 미감에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동선기」속 악인은, 부정적 인물은 등장하지만 악인형은 드물었던 재자가인소설에 통속소설의 강한 영향으로 소설적 흥미를 주는 악인형 인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의 삽화처럼 등장하고 그의 징치나 勸善의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은 아니기에 후대 본격적 통속소설 속 악인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동선기」는 재자가인소설이 통속적 국문소설의 영향으로 선악의 대립으로 치닫고 동선이 악인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열녀적 면모를 부각시킨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이 글에서는 고전소설 속 악인의 모습을 한문소설, 그 중에서도 17세기 전기소설의 변모를 보이는 두 작품에서 살펴보았다. 선악의 구분이란 상대적이기 때문에 통속적 영웅소설이나 선악 대립이 극명한 가정소설의 관점에서 본다면 「운영전」과 「동선기」속 악인은 진정한(!) 악인이라고 여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두 작품 중에 「운영전」에서는 선악의 대립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면 「동선기」에서 악인은 동선과 서문적에게 직접적 시련을 가하는 구체적 존재이다. 따라서 「운영전」에 비해 선악의 대립이 구체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운영전」에서의 惡은 공동체의 가치보다 개인적 가치를 우선시 하려는 개인의 욕망이었기에 독자는 주인공의 사랑에 슬퍼하면서도 쉽게 동화되거나 선의 측면에 설 수도 없는 선과 악의 경계가 불분명했다. 이에 비해 「동선기」에서 惡은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사회적 악이기에 누구나 마음껏 악인을 욕하고 악의 징치에 쾌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한글본 「동선기」와 비교할 때 한문소설 「동선기」에는 악의 징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주인공의 시련극복과 영웅적 활약의 부수적인 측면이 강하다.

「운영전」과 「동선기」에 보이는 악인형 인물의 등장은 조선후기 본격

적 통속소설의 前史를 보여주니, 한글본 「동선기」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통속적 욕망이 반영됨에 따라 향후 선악의 대립이 극명한 소설이 창작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들 작품 외에 한문소설에서 악의 모습은 전기소설이나 몽유록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거칠게 말한다면 전기소설이나 몽유록 속 惡은 부정한 현실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작중 인물이 처한 상황이거나 세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그러한 면모가 드러난다. 이외에 재자가인소설 속에도 주인공과 대립하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자가인소설은 조화로운 세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도 언제나 화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대표적 재자가인소설이라 할 「홍백화전」에서 가장 큰 갈등은 여주인공 순직소에게 여방언의 혼인 강요이지만 대장공주가 부마가 되길 원하니 금세 문제가 해결되고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역모를 일으킨 하북의 왕이나 토번왕의 침입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사건은 양소유의 英雄才子적 면모를 부각시킴과 동시에 또 다른 여인과의 결연의 계기로 작용할 뿐이다.

그러나 재자가인소설에서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가 강조되는 경우에는 선악대립이 노골화되기 쉽다. 「구운몽」의 간단한 전쟁 장면은 통속소설인 「옥루몽」에 오면 온갖 전략과 술법이 총동원된 화려한 군담으로 변하여 악인과의 처절한 싸움으로 그려진다. 「옥루몽」의 여주인공들은 현덕한 덕성과 희생적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도 악인의 등장은 주인공의 덕성을 부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이 글에서는 「운영전」과 「동선기」 속 선악 대립이 이후 통속소설의 전사로서 기능함을 밝혀 보았다. 고전소설사에서 선악의 대립이 상투화되는 것은 이보다 후대의 일로, 고전소설 전체에 대해 권선징악이나 상투성으로 비난하는 것은 올바른 비판이 아니다. 특히 한문소설에서는 전기소설이나 몽유록, 재자가인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검토하면 선악의 대립으로 쉽사리 단정 지을 수 없을 것이다. 한문소설에서 통속

소설로의 변모나 국문소설과의 접촉의 양상을 다방면으로 고찰하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이다.

<參考 文獻>

- 곽신환, 「악에 대한 유가철학적 이해」, 『惡이란 무엇인가』, 창, 1992.
- 김정숙, 『조선후기 재자가인소설 연구』, 보고서, 2006.
- 이강엽, 「惡의 超脫 寬容의 敍事」,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09.
- 이남호, 「한국문학과 악 - 조선시대 소설에 나타난 악의 양상」, 『한국문학이란 무엇인가』, 민음사, 1995.
- 이동희, 「성리학의 선악관」, 『동양철학연구』 50, 동양철학연구회, 2007.
- 조현우, 「고소설의 악과 악인 형상에 대한 문화사적 접근」, 『우리말글』 41, 우리말글학회, 2007.
- 황혜진, 「고전소설 소재 인물의 역사적 삶에 대한 연구 -<운영전>의 안평대군에 대한 실록의 기록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 노베르트 슈페만, 『도덕과 윤리에 관한 철학적 사유』, 철학과 현실사, 2001.
- 안네마리 피퍼, 『선과 악』, 이끌리오, 2002.

Abstract

The Meanings of the Birth of Villains in 「Unyoungjeon」 and 「Dongsungi」
/ Kim Jeong Suk*

The cliché confrontation between good and evil is generally pointed out when discussing classical novels, but it is with the Hangeul popular novels after the 18th century that the good-evil confrontation became general in classical novels. The conflicts in Cheongi-oseol cannot be simply explained with the confrontation between good and evil. It was after the 17th century that the abstract evil called reality began to manifest itself specifically in Geumo-sinhwa and Mongyurok. The Cheongi-oseol in the 17th century can be characterized by the tendency toward a longer and popular story, in which the number of characters increased, the space got expanded, and conflicts among characters became concrete. It is those days that villains started to appear in specific forms in Cheongi-oseol, and there were Unyoungjeon and Dongsungi at the forefront.

While the order represented by Anpyeongdaegun in Unyoungjeon, Unyoung's desire against it violates the Neo-Confucianist ideology. It was at this point that the desire grew to see confrontations and hesitations between personal and community values and regard individual life as something of more good than community life. However, the desire failed, not getting over the community values, which is depicted in Unyoungjeon. Even Anpyeongdaegun was a politically alienated figure, which means his function in the novel was not a villain. Thus the composition was completed in a way that the villain called Teuk was blamed for all the faults and punished by Heaven and that Unyoung and Kim Jinsa met in Heaven as part of the reward. Despite the composition,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 kimjs8613@hanmail.net

however, the overall sense of sorrow of Unyoungjeon does not go away. There are confrontations between good and evil in Unyoungjeon, but the boundary is blurry and the villain is different from that of a popular novel.

There are two villains named Angi and Hosondalhee in Dongsungi. Their mere function is to highlight the aspects of Dongsun as a virtuous woman, and they claim no further significance in the novel. Unlike in Unyoungjeon, Dongsun's love does not violate the community values, which means the two villains harm the community values rather than the personal values of Dongsun. It is noteworthy that the goal of Dongsungi, a novel written in classical Chinese language, was not to reward good and punish evil like a Hangeul popular novel, which is demonstrated by the fact that the Hangeul Dongsungi ends the story with the happy ending and reward for Dongsun and Seo Mun-jeok unlike its Chinese language counterpart. In the two works, the villains functioned as an alternative instead of playing the unique roles of a villain. However, given the discussions above, they can be regarded as the prehistory of villain characters between classical novels and popular ones.

【Key words】 good and evil, personal, community, villain, 「Unyoungjeon」,
「Dongsungi」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30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